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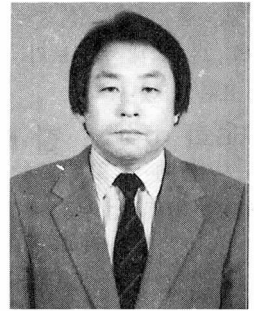
# 노랑할미새

글·사진 李正雨(鳥類研究家)



學名 *Motacilla cinerea robusta*

英名 Gray Wagtail



노랑할미새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 철 새이다. 알락할미새와 더불어 강가나 개울, 저수지나 논, 물이 있는 물가에 서식하는 노랑할미새는 항상 꼬리를 상하로 흔들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특수한 행태를 가지고 있다.

이른 봄, 못자리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에 동남아시아에서 월동을 마치고 한반도에 상륙하여 전국으로 폭넓게 흩어져 둥지를 틀 채비를 한다.

회색 등판에 배가 노란 이 새는 경계색이 없고 또 몸놀림이 가벼워 눈에 잘 띄이는 새로 흔히 볼 수 있는 새이지만 항상 이들이 서식하는 장소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해 낸다.

번식은 개울가의 언덕에 땅을 약간 오목하게 판 다음 마른 풀잎으로 둥지를 튼 다음 산좌에는 말총같은 동물의 털을 물어다 짓는 것이 보통인데 한배에 5개쯤 알을 낳는다.

알 품기는 캄캄이 주로 하고, 3일을 전후하여 부화를 한다.

갓 태어난 어린새는 깃털이 없는 벌거숭이를 곤충을 물어다 먹이는데 성장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지상에다 알을 낳는 새들은 천적으로부터의 위협

을 계산해서인지 약 2주일을 전후하여 둥지를 떠나게 되는데 이 노랑할미새도 예외는 아니다.

새끼를 빨리 길러 내야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인지 육추기의 노랑할미새는 암수가 계속 곤충 사냥을 하여 다 먹이는데 하루에도 수십번씩 먹인다.

이때 구제되는 곤충의 숫자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새들의 서식환경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자연적인 먹이연쇄의 균형으로 굳이 농약이나 산림해충의 구제약품 살포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곤충 사냥을 나간 어미 노랑할미새는 한번에 여러 마리를 입에 물고 와서 골고루 나누어 먹이고 먹이를 먹은 어린새는 우무질로 쌓인 배설물을 바로 배설하는데 이때 이 배설물은 물어다 멀리 갔다 버린다.

배설물을 물어다 버리지 않으면 쌓인 배설물에서 해충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또 교묘하게 은폐해서 지은 둥지의 노출을 감추기 위한 생존수단은 자연의 섭리치고도 대단히 수준이 높은 지혜이기도 하다.

10월 중순 월동지로 남행을 한다.